

① 친일인명사전, 네티즌 독립군의 '선한 분노'로 편찬 가속화



'붉은 악마'와 '촛불 연대'의 뒤를 이어 이번엔 '네티즌 독립군'이 등장했다. 16대 국회가 전액 삭감한 '친일인명사전' 편찬 예산 5억 원을 '네티즌 독립군'이 모금해 감동 드라마를 연출한 것. 통일시대민족재단(이사장 조문기)과 인터넷

오마이뉴스(대표 오연호)가 합동으로 펼친 '친일인명사전 모금운동'은 네티즌 독립군의 폭발적인 지원에 힘입어 모금 시작 불과 열하루 만에 목표금액 5억 원을 달성했다. 당초 3월 1일까지 1억 원을, 8월 15일까지 5억 원을 목표로 한 모금운동이었다. "독도는 우리 땅이라 몇 천 번 외치는 것보다 친일파 1명을 청산하는 것이 일본측에 더 큰 압력일 것", "늦은 감이 있지만 더 늦기 전에 해야 할 일, 만세를 부르고 싶다"라는 게시글에 수많은 댓글이 썩어지며, 모금동참의 연대는 들불로 번져갔다. 웃지 못할 촌극도 있었다. 행정자치부의 모금운동 중단 지시가 오히려 기름을 붓는 궂이 되었는데,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이 성금을 낸 것으로 밝혀지자 "다양한 관점에서 비롯된 다양한 활동들이 이뤄지도록 정부가 유연성을 갖는 게 좋겠다"며 모금운동 합법화를 인정하고 슬며시 꼬리를 내린 것. 이번 모금운동에는 "민족사의 모든 비극은 친일잔재청산이 미비했기 때문"이라며 소설가 황석영 씨도 동참했고, "일제치하 때 아버지가 농민들을 괴롭혀 일본을 배불리는 일을 했다"는 부끄러운 고백을 밝힌 네티즌도 동참하는 등 국민 2만 2,000여 명이 '친일인명사전' 편찬에 뜻을 함께 했다. 한편 목표달성일인 1월 19일에는 통일시대민족재단과 오마이뉴스가 <친일인명사전 네티즌 성금 이용방안에 대한 협약서>를 체결. 옛 반민특위가 있었던 국민은행 명동지점에서 모금액 달성 기념행사를 갖고 반민특위의 부활을 알리는 촛불식도 거

'친일인명사전' 편찬 모금운동과 윤경로 편찬위원장

행했다.

통일시대민족재단은 지난 2001년, 국내외 전문학자 120여 명으로 구성된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위원장 윤경로)를 특별재단으로 발족, 5개년 계획 아래 '친일인명사전', '친일단체편람집', '관련용어해설집' 등 20권 분량의 친일총서 간행을 발표할 바 있다. 인물의 선정기준 수립과 친일행적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학술행사와 집필자료 수집을 2004년 말까지 하며, 이후 편찬위원회가 확정된 '친일과 규정'에 따른 인물선정과 집필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편찬위원회는 현재 '일제의 민족분열정책과 친일세력의 구조와 논리' 심포지엄을 준비중이며, 일제하 지역별 친일단체 인물조사, 일제하 지역단체·인물 친일관련 기사 색인 입력 등을 가속화하며 《일제하 지방 친일단체 편람》 간행을 준비하고 있다. 데이터베이스가 완전 구축되는 올해 3차년도 사업이 끝나면 '친일인명사전' 편찬은 본격화된다. 역사의 오점을 밝혀 과거청산 역사의 정점이 될 '친일인명사전'의 '머리말'이 어떻게 시작될지 궁금하다.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윤경로 위원장을 만나 '친일인명사전' 편찬 의의와 이번 모금운동에 대한 의미를 들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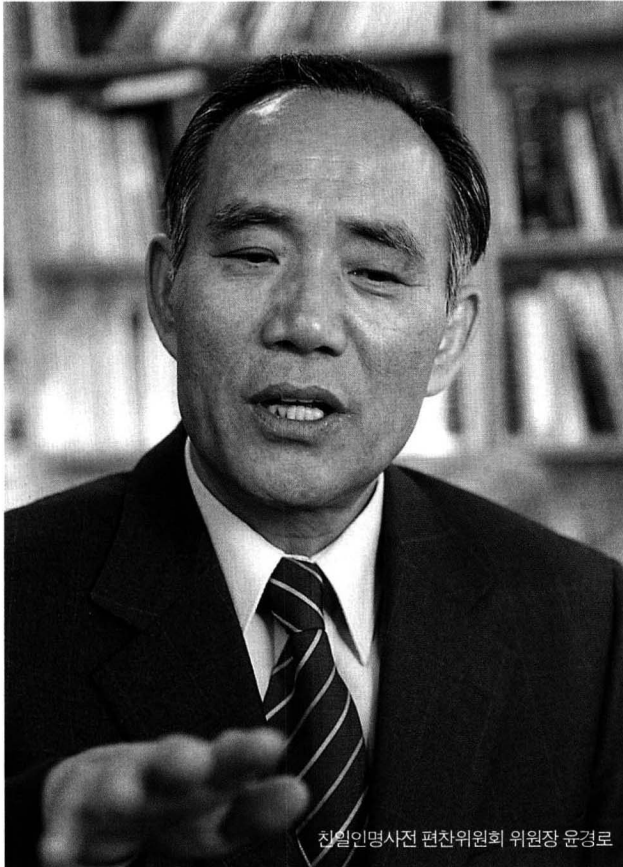
친일인명사전 편찬 의의를 말해달라.

"해방 이후 반세기를 넘긴 지금, 친일자들에 대한 형사적 심판이 가능하겠습니까? 역사화하지는 것입니다. 역사를 말할 때 우리는 늘 자랑스러운 역사만을 말하고 교육해 왔습니다. 치욕의 역사를 객관적으로 밝혀 드러내는 작업 역시 필요합니다. 전과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역사 앞에, 민족 앞에 솔직해져야 합니다. 친일자들의 후손과 달리, 독립운동가들의 후손들은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이라도 없다면 앞으로 어느 누가 국가를 위해 일을 하겠습니까. 친일인명사전의 편찬 의의는 여기에 있습니다."

3차년도 사업예산 5억 원을 국회가 전면 삭감해 사전편찬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뻔했는데, 당시 심정은...

"참으로 개탄스러웠습니다. 국회에서 5억 원은 아낄 만한 금액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이번 사업을 이해하려 하지 않는 국





친일인명사전 편찬위원회 위원장 윤경로

회에 실망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국가적 차원의 일을 재단이 도맡고 있는 것이지, 재단 좋으라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예산 삭감 통보를 받고 어차피 하루 이틀에 할 일은 아니지 않느냐, 긴 호흡으로 천천히 가자고 마음을 추스르고 있었는데, 뜻하지 않은 네티즌들의 도움에 큰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타산지석이 된 셈이지요.”

네티즌들의 성원으로, 불과 열하루 만에 5억 원이란 금액을 모았습니다. 아날로그 세대로 이번 일을 지켜본 소감은?

“각계각층 3만여 명의 국민이 참여했습니다.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듯했지요. 월드컵 이후 우리나라에 부는 한국인의 다이나믹한 힘을 다시 한 번 보여준 사례인데, 이웃나라 일본에서 이번 일을 지켜보며 무척 놀라워했습니다. 선한 분노의 물결에 외압도 수그러들었지요. 편찬위원 모두 우리가 정말 이 일을 해야 되는구나, 하는 더 큰 사명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친일인명

사전 네티즌 성금 이용방안에 대한 협약서>를 체결하며 온라인 모금운동은 끝났지만, 통일시대민족재단의 후원창구를 통해 현재도 많은 성금이 도착하고 있습니다.”

현재 친일인명사전 편찬 진척은?

“일제식민통치기구 및 협력단체 편람 간행이 곧 마무리 될 예정입니다. 편람집이 완간되면, 친일의 범주, 개념, 내용을 어디까지 취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상임위원회를 두고 선정기준을 정하는 작업이 진행됩니다. 사실 친일인명사전이란 명칭에 대해서도 더 검토를 해야 합니다. 모호하고 또 민감한 단어라 반민족행위자, 친일협력자 등 여러 가지 명칭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번 모금성금은 어떻게 쓰이는지?

2004년 3차년도 사업운영자금으로 쓰게 됩니다. 피 같은 성금임을 잘 알기에 한 푼이라도 헛되이 쓰지 않도록 재단은 긴장할 것입니다. 이번 일에 협력해 준 인터넷 ‘오마이뉴스’를 통해 3개월마다 투명하게 경과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친일인명사전 작업에는 35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데, 국가적 사업으로 전환해 친일인명사전이 편찬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네티즌의 뜻을 보았으니, 정부도 지원대책에 소홀하지 않을 것이라 판단합니다.

친일인명사전 편찬위원장을 맡게 되셨는데…

“부담스런 자리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역사학자로서 반드시 이 일은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더 끌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국민들의 열린 눈과 귀를 의식하며 이번 일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

취재 박용두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